

최예찬
1996년에 태어나 올해 25살이다.
연락처는 010-2761-4196, dpcks008@gmail.com이며,
거주지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393 가장 작은방에
살고 있다. 학력은 울산대학교 디자인 건축 융합대학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학전공 졸업예정중이다. (8월 졸업)
작업을 함에 있어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다. 무조건적인 형태미를 추구
하는것 보다 생각과 접근이 분명하고, 그 분명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형태를 추구한다.
현재는 스튜디오 더블디에서 인턴 생활 중이다.
(3/9 - 6/8 종료)

About
최예찬은 교내에서 수업 수강을 병행하며 친구들 또는 동기, 선후배들과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을 좋아해 선후배 간의 교류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Yippee project’를 시작으로 학생회의
기획팀장 직책을 맡아 학과의 행사 및 전시를 기획하고, 그래픽디자인 소모임 ‘UOUGDS’를 창설해
좋은 기회로 서울에서 열리는 국내 디자이너와 스위스 디자이너가 함께하는 ‘Weltformat Korea2’에
좋은 기회로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 후 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의를 기획해 국내의 현업에 있는
스튜디오에 직접 연락을 취한다.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오디너리피플’, 그래픽디자이너 ‘용세라’, 그래픽디자이너 ‘안마노’,
웹툰작가 ‘김용키’ 등을 초대해 강연을 개최하고 홍보하는 포스터를 팀원들과 같이 제작했다. 교내의
마지막 활동은 졸업준비 위원회의 위원장 직책을 맡아 졸업전시 ‘의도된 노출’의 아이덴티티와
전시 구성을 기획 및 제작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최예찬은 대학교 1학년때 디자인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필드에서 활동중인 디자이너들이 강사로 오면서 그 분들에게 디자인을 배우며 2학년때
‘그래픽디자인’ 분야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낀다.
3학년의 시기에 디자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배우며 ‘디자인은 예쁘고 멋있게 만들면 된다.’
라는 생각을 벗고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시각매체를 이용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다.’
‘디자인은 논리에 입각해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좋은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카페 누보쌍스와 콜라보를 기획, 전시인 ‘From the Art Nuveau’를
협업을 하며 진행했다.
울산의 잉여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사이그라운드 재생 프로젝트 ‘Rest In Forest’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이처럼 최예찬은 디자인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며,
여러 사람들과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설득하는 방법과 타인의 생각을 듣는법을
배우고, 기획부터 마무리까지의 행동력과 시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등을 배웠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의견 조율과 협업하는 과정을 익혔다.

최예찬
연락처는 @choiyechan 이다.
성격은 매우 활발해 밝고 긍정적인 편이다. 담력이 하나도
없어 공포영화, 무서운 이야기는 꿈도 못 꾸다.
특기는 축구로 특히 미드필더로 경기 템포 조절을
잘한다. 취미는 수다떨기로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학교를
다닐 당시에 별명이 샵살개였다. 음악을 듣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며, 장르는 몸이 배배 꼬일 정도로 달달하고
로맨틱한 것들을 즐겨 듣고 본다.

장래희망: 브랜드 디자이너
존경하는 인물: 디렉터 최장순
여러 사람들과 협업하며,
작업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장래희망: 축구선수
존경하는 인물: 지소연 선수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한다.

： 왼쪽은 디자인을 대할때는 굉장히 몰입하며 진지해지는 최예찬이다.
오른쪽은 평소 일상의 밝고 활동한 재밌는 최예찬이다.
나는 말그대로 정말 재밌지만 매우 진지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사진—박정진, 디자인—최예찬

최예찬

Designer



최예찬

Person